

DENTAL NEWS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71주년기념 심포지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7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한국치과의료 2천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개최되었다.

전국시도지부장, 관계자, 일반 치과의사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웨스턴 조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헌택박사의 주제발표와 신승철 단국대 치대교수의 「구강보건인력의 활용」, 정상주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장의 「개원의가 본 2천년대의 한국치과의료」, 박윤희 보사부 지역의료과장의 「2천을 바라본 한국의 구강보건정책방향」, 김상욱 교육부 사무관의 「2천년대 한국치의학 교육의 정책방향」과 유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헌택 박사는 치협의 정보화와 국제화를 강조하였고,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대학정원 감축, 치과대학교육연한 연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신승철 교수는 구강보건인력의 적절한 업



〈심포지움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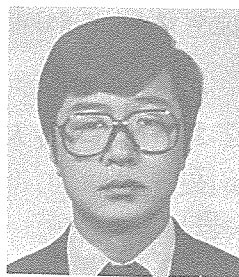
무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분업과 협업치과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치과의사들이 새로운 진료개념이나 업무개념을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상주 치과의료관리학회장은 2천년대의 치과의학을 결정할 내적-외적변화에 충분히 대비함으로써 최선의 대응책 모색을 시도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치과의료상의 확립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지헌택 박사 사회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윤흥렬협회장은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2천년대는 치과의사들이 사회적 동량역할을 당부했다.

대한치주과학회 제32차 종합학술대회



〈한 수 부 회장〉

지난 11월 21일(토요일) 대한치주과학회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제32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한치주과학회는 일반연제 및 Symposium 그리고 특강, 포스터 전시등의 행사가 치루어 졌으며 Symposium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Implant의 실제”라는 주제로 4명의 연자가 발표하였다.

대한구강보건학회 92-3차 정기학술대회

92년 12월 12일(토) 오전11시 ~ 오후8시 대한구강보건학회가 충남 온양에서 92-3차 정기학술대회를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학회는 앞으로 있을 아시아 예방치과학회와 같은 국제적인 학회의 국내개최에 대비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실태를 조금이라도 현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여러 편의 논문발표 및 특강, 테이블 크리닉, 서적 및 기자재 전시, 특별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93년도 치과의사국가 시험에 필리핀 유학생 105명 응시 -총 1019명 원서접수-

10월 17일 마감된 93년도 제 45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모두 1019명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103명이 외국치과대학의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치의국시에 원서접수한 유학생중에는 필리핀 소재 치과대학에서 유학한 지원자가 103명에 달해, 근래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필리핀 소재 치과대학 유학생의 증가세는 지난 86년 이후로 지속되 왔는데, 그간 국내 치과의사 과잉공급문제로 치과대학의 신설 및 증설에 반대하고, 각 치대의 입학정원의 동결 및 감축을 주장해 온 국내 치과계에 이번상황은 적지 않은 파문을 던져 주고 있다.

또한 필리핀 유학생의 응시 증가 추세에 비해 그들의 합격률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금년의 경우 79명이 응시하여 22명이 합격하였다.

치과계에서는 이제 외국치대 유학생들의 응시자가 100여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국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치협은 특히 현행 치과의사국가 시험으로는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등 이의 개선을 위해서 현행 국시제도에내 임상능력평가시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을 주장했다.

93년도 치과대학 정원확정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93학년도

모집정원이 확정되었다.

지난 10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37개 대학의 전·후기 모집정원중 치과대학은 11개대학에서 모두 73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년과 다름없음을 보여주었다.

12월 22일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금년 전기대의 모집정원 16,4250명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치과대학의 모집정원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치대 : 100명
- 연세대 치대 : 80명
- 경희대치대 : 80명(후기 25명),
- 경북대 치대 : 60명
- 전남대치대 : 70명
- 전북대치대 : 40명
- 단국대치대 : 50명
- 강릉대치대 : 40명(후기 16명)

경북치대 동창회 총회 개최

경북대 치과대학 동창회가 지난 11월 14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평생회비 모금에 노력할 것과 각 동기회의 활성화와 장학위원회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부회장 3인제를 7인제로 늘리기로 회칙을 변경했고 회무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천 3백여만원의 93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를 의결하였다.

이번 경북대 치과대학 동창회 정

기총회에서는 안재진회원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신입 부회장은 김은제, 전태인, 김석순, 전준영, 채두희, 오용화 의원 등이 선출되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의 제 21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7일 신축치과대학관 로비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모교방문 행사와 함께 이루어진 이번 동창회에서는 30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윤홍렬 치협회장을 비롯해 김현풍 치협부회장, 이병희 총동창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이날 동창회에서 윤홍렬협회장은 「평소에 학문정신에 힘써온 것처럼 모든 일에 노력하는 경희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치과계 발전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재규 동창회장은 대학의 발전과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5천 9백여만원에 이르는 93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동창회 활성화와 동문들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평생회비의 납부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희치대 신축건물기금모금 위원장인 정규림 동문을 비롯해,

이 기금모금에 참여한 3백여명의 동문에게 감사장이 수여되고 오성식, 정철민, 김문기 동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어 진행된 모교 방문행사에서는 경품추천과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됐고 이충복 동문의 대형 동양화 기증식이 있었다.

서울치대 22회 동기회 92년도 정기총회 개최

서울치대 제22회 동기회가 지난 10월 31일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이명숙씨, 부회장에 김우성씨, 윤학영씨가 감사에 황세일씨가 새임원진으로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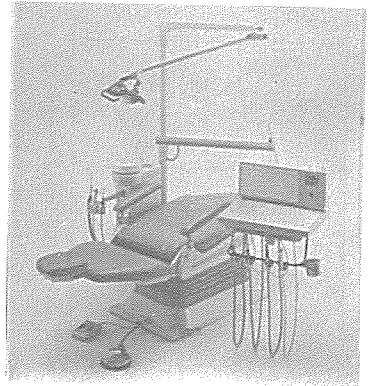
이번 총회에서 22회 동창회는 4년전부터 계획하여 오던 25회 동창회 정기총회를 해외 LA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서울치대 동기회중 처음으로 해외에서 졸업기념행사를 갖는 22회 동기회는 국내에서 최소 30여명 이상의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고, 1인당 2백만원씩의基金적립에 착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김우성부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국내에선 이규철 박승우 김의환 양동환 정호균 동문이, 미국에선 박노희 한종철 조상수 김홍일 최미혜 이중의 동문이, 일본에선 박래정 동문이 각각 앞장 서기로 했다.

신교개원의를 위한 무료 공개설명회

주식회사 신흥이 12월12일(토)과 19일(토) 양일에 걸쳐 신규치과 개원을 위한 공개설명회를 방배동 신흥 사옥 7층 연수센터에서 갖는다. 개원에 따른 각종 기초계획에서부터 마무리 까지 일련의 과정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치과경영에 필요한 착안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강연은 장소 선정, 진료공간 설계에서 적절한 기기선택 등을 과정으로하여 여러 교수진과 실무진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삼신합금

■ 치과용 귀금속 전문 ■

앞선 技術, 信頼받는 製品

● Casting Gold 1.2.3.4 Type

● Palladium Alloy A.B. Type

● Porcelain Gold

● JWG, JP 92 판매중

● Super O Type

(* 지방주관인업)

서울 : TEL. 238-9111

· 6555 · 5858

FAX. 238-9777

부산 : TEL. 754-0806

FAX. 754-0897